

환경분과위원회의 프로젝트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보전 리더회의

1. 개최목적

동북아시아 지역의 학교나 지역에 있어서 일반 대중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중학생 등)들에게 국제적인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넓은 시야에서 환경보전에 노력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보전 추진을 도모한다.

2. 개최 개요

(1) 개최 일 2007년 8월 11일 (토), 12일 (일)

(2) 개최장소 일본 도야마현 다테야마마치
국립다테야마 청소년 자연의 집

(3) 참가자 중학생 49명 (4개국·7지자체)

중	국	: 5명 (랴오닝성 5명)
일	본	: 25명 (도야마현 22명, JUNEC 3명)
한	국	: 9명 (강원도 3명, 충청남도 6명)
러	시	아 : 10명 (연해주 지방 7명, 하바로프스크지방 3명)

(4) 테마 해양환경보전 (해양쓰레기 문제)

(5) 내용

ㄱ 활동보고 (13단체)

참가자가 각자의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착물 조사나 환경조사 등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참가자 간에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 2006년도 랴오닝성 4도시의 해변 표착물조사 (중국 : 랴오닝성)
- C.C.Z.해안청소 (일본 : 도야마현)
- 전교생이 활동해 온 에너지절약·환경보전 활동 - 4년간의 발자취 (일본 : 도야마현)
- JUNEC(쥬네크) 포럼 2004~2006 (일본 : 쥬네크)
- 해양환경의 조사보호활동 (한국 : 강원도)
- 다양한 자연 친화적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보전의 생활화 (한국 : 강원도)
- 천연기념물 제 431호 신두리 해안사구의 생태환경조사 (한국 : 충청남도)
- 자연과 더불어 사는 흥동사람들 (한국 : 충청남도)
- 에레나 (Elena) 섬의 환경감시 (러시아 : 연해주 지방)
- 우리는 미래에 여기서 생활한다 (러시아 : 연해주 지방)
- 바니노지역 바니노후미의 해수와 해안조사 (러시아 : 하바로프스크 지방)
- 크라스나야 환경현상조사 (러시아 : 하바로프스크 지방)
- 동해연안의 인공표착물 조사 (러시아 : 하바로프스크 지방)

ㄴ 야외실습

「해양쓰레기의 조사실습」

(재단법인 환일본해 환경협력센터 후지타니 료이치 주임연구원)

(히미시 해변 식물원 고토 치요코 원장)

ㄷ 환경학습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의 현상과 과제 (예정) 」

(강사 바바 노리오 NOWPAP/RCU 도야마 사무소 행정담당관)

ㄹ 의견교환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을 앞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가자들간에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의견의 일례>

【러시아 참가자로부터】

많은 새로운 정보를 들었습니다.아주 재미있고,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자신의 학교에서도 모두에게 이야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자손들에게도 깨끗한 환경,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

【중국 참가자로부터】

나는 아직 중학생이니까 환경보전에 관한 큰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큰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작은일부터 시작하자」

이 말대로 나는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반 친구들을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보다 아름다워 질 수 있도록.

【일본 참가자로부터】

나는 동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해쪽보다는 태평양쪽을 가깝게 느꼈습니다.

어제 실제로 동해쪽에 나가보니 태평양보다 쓰레기의 양이 조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각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동해의 문제를 여러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바다와 친밀하지 않은 사람도, 자신들이 일으키고 있는 행동이 바다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ㄹ 「도야마의 맹세」 채택

이번 회의의 정리하며 도야마현 가미이치중학교의 사카이,가네시로,아오야마 세명이 「도야마의 맹세」 를 선언. 참가자 일동이 채택했다.

「도야마의 맹세」 선언문

동북 아시아 청소년 환경보전 리더회의에 참가하는 우리들은, 이 회의를 통해 참가자가 각자의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이나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해양환경문제는 그 원인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나라나 지역만의 활동이 아니라,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계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북 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 청소년이 지역의 리더가 되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우리들은 공유의 재산인 동해·황해의 환경보전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고, 동북아시아의 혜택받은 환경이 언제나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며 서로를 좋은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맹세한다.

2007년 8월 12일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보전 리더회의 참가자 일동

1 활동보고



2 야외실습



3 의견교환



4 「도야마의 맹세」 선언

